광주 봉선·진월 3개 아파트 재건축 대상 제외

사업성 떨어져…광주 정비 예정구역 13곳 남아
5곳 사업진행·3곳 완료·5곳 안전진단 준비 중

광주 남구 봉선 라인모아·봉선 명지맨션·진월 신흥타운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3곳이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광주에는 재건축 대상지 13곳이 남게 됐다.

광주시는 최근 남구 봉선 라인 모아, 봉선 명지맨션, 진월 신흥타운을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해당 구역에 재건축 사업 추진이 없자 주민 의사를 물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직권 해제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이들 3곳이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사전 예고〈광주일보 2019년 7월 24일자 5면〉한 바 있다.

이들 아파트는 2006년 1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3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현재 용적률은 220%가량이지만 계획상에는 190~210%로 설정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한 용적률 최대치(250%)를 적용한다 해도 현재 가구 수보다 많은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 주택 재건축 대상지는 서구 4곳, 남구 7곳, 북구와 광산구 1곳씩 모두 13곳이 됐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서구 염주주공, 남구 방림 삼일, 주월 장미, 월산 신우, 북구 운암 3단지 등 5곳이다. 서구 쌍촌주공, 화정주공은 사업을 마치고 입주가 완료됐다. 지난 여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쓰였던 송정주공의 경우 내부 정비를 거쳐 내년 입주자를 맞이한다. 남구 봉선 라인하이츠 1차·2차, 봉선 모아 2차, 주월 스카이, 서구 화정 삼익 등 5곳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오찬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4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안평환 대표를 비롯한 센터 직원,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을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능성 원료은행 유치 신속 대처해 달라"

김영록 전남지사, 실국에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의 유치를 위해 해당 실·국이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지시했다. '기능성 원료은행'은 기능성 원료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실증하는 연구기관이다.

김 지사는 4일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법적으로 허용된데 이어 도의 건의로 2020년 정부 예산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이 반영된 만큼 이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발빠르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1월 정례조회를 통해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 만큼,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이 이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기능성 건강식품의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기능성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을 통해 수입 대체가 필요하다"며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을 전남이 유치하도록 식품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능성 건강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6000억원이었으나 2017년 4조 2000억원, 2018년 4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기능성 원료 수입량도 2016년 5972억원에서 2017년 6007억원, 2018년 7217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특화자원인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퀴세틴', 녹차의 '카테킨', 귀리의 '식이섬유' 등 기능성 원료 가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2020년 국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분야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줄 것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사 등에 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성공 추진 힘 모은다

전남도, 토지주택공사·나주시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는 4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가 함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세종 첨단신소재, 충남 논산 전력지원체계, 강원 원주 의료기기, 충북 충주 바이오헬스, 충북 청주 바이오,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등 7개 지역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개발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에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전력기자재,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겠다"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2020년부터 나주 왕곡면 184만㎡(56만평) 일원에 33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등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앵커기업인 한전 등과 연계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민간공원 수사'에 광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일부 연기

관련 공무원 검찰 출석…건설위 등도 감사 이뤄질 지 의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일정도 변경됐다.

4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오는 7일로 연기했다. 특정 감사로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5일 광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윤 위원장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 관련 수사가 담당 국장급 공무원의 구속으로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관련 감사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또 1일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도시공사, 14일 환경복지위원회의 환경생태국 대상 감사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제대로 감사가 이뤄질 지 여부도 의문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12일간 광주시,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의 행정사무 감사를 열어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 요구와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민의를 대변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데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감사에서 민간공원 사업의 문제를 따져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오늘부터 정례회

전남도의회가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제 336회 2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는 특히 이번 정례회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5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무안공항 활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전남도 대책,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에 밀린 국내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대책, 복지재단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혁신교육의 정착 여부와 학교지원센터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는 또 오는 21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의 2020년도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 이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이외 최명수(나주 2·민주) 의원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안 철회 촉구 건의안', 임영수(보성 1·민주) 의원의 '전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밭작물 육성 공동경영체 다음달 5일까지 공모

전남도가 2020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12월 5일까지 공모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양파, 대파, 배, 무화과 등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18개소를 선정한다. 경영체별로 2년간 10억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10%다.

지원 대상은 채소류, 과수, 특용작물 등 각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이다.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 컨설팅 비용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육묘, 공동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가공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경영체는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자격 여부 심사 후 서면·발표 평가를 한다. 전문가 평가단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